

'U대회 유치' 기필코 성공

'해양 경제권' 닷 올린다

광주시가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유치를 통해 올해를 세계 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다시 편다. 또 광산업 이후 미래 성장동력이 될 미래형 클린디젤자동차 육성사업과 가전로봇사업을 본격 육성한다.

시가 지난 2013 U대회 유치 실패에도 재도전을 선언한 것은 '문화수도' 광주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시는 U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교두보를

포함해 대만(타이페이), 캐나다(에드몬튼), 브라질(리오 또는 브라질리아), 폴란드 포즈난, 스페인(비고 또는 그라나다) 등 6개국.

광주는 이미 2013 U대회 유치활동을 통해 FISU 집행위원들과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게다가 지난 대회 유치전에서 약점으로 꼽혔던 도시 인지도의 한계도 이미 극복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회 개최지 결정이 당초 보다 1년 앞당겨진 오는 5월인 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본격화

축할 계획이다.

클린디젤 생산 및 개발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는 18조5천5백억 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가 46조6천82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클린디젤자동차산업은 광산업 이후 광주 경제의 비전을 새롭게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 370억 원 규모의 '가전로봇 특화육성 사업'도 20억원의 초기 예산이 확보돼 국가적 성장동력 분야인 지능형로봇산업 발전을 시가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지역은 이미 삼성 광주전자와 화천 기공 등 지역 소재 기업에서 로봇제품 및 핵심 부품을 개발·생산해 가전로봇 실용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전자 부품연구원, 전남대학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대회 실패 바탕 치밀한 전략 추진 클린디젤자동차·가전로봇 사업 육성

삼는다는 복안이다.

U대회 유치 이후 6년 여 준비기간을 통해 교통, 통신망, 경기장, 호텔 등 스포츠 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도시 장기 발전의 기초를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대회 유치 실패 이후 재도전에 나선 광주시는 대회 유치를 낙관하고 있다.

2015 U대회 개최지는 오는 3월14일 유치신청서 제출, 4월 중순 후보도시 현지 실사를 거쳐 5월 23일 최종 결정된다. 현재 U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국가는 광주

한다. 핵심 사업은 클린디젤자동차 육성사업과 가전로봇사업이다.

시는 이미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사업'과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으로 각각 5억 원과 20억 원을 확보,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광주를 중심으로 클린디젤 관련 소재, 가공, 열처리, 단조, 주조 등 기능별 단계를 조성해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부품 기업을 유치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과 부품 성능 평가를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

이밖에 시는 올해 광산업 3단계 사업에 본격 착수, 광기반융합기술 인프라 구축,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사업 등에 모두 527억 원을 투입하고, 광주 세계광역스포츠를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산업,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다진다.

박광대 광주시장은 "올해 U대회 유치에 성공하고 클린디젤자동차 육성사업과 가전로봇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경우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전남도는 올해 도정 역점을 '경제 살리기'와 '성장동력 확충'으로 정했다.

또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녹색성장'과 '해양경제권' 기반 구축의 해로 삼았다.

전남도는 최근 지역 기업의 자금사정 및 고용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속화에 따른 전 분야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 재정지출 확대와 지방재정 조기집행, 서민생활 안정지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2만8천개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내수를 진작시켜 실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SOC 등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10.4% 늘린 1조2천797억원, 지방채 발행 규모도 전년 대비 26.7% 늘어난 1천533억원 등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집행 속도도 최대한 높여 전체 집행 대상 예산 4조6천억원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이중 60%인 2조8천억원 이상은 상반기에 자금을 집행한다. 또 고용시장 약화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체험형 서민생활 대책도 적극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로 불리해진 지역 투자 여건을 만회하기 위한 할로도 모색하기로 했다. 도민 참여 '1읍면동 1기업 유치 운동'을 확산시키고 투자실험을 제고 위한 투자협약기업 지원 및 파격적 인

센티브 제공, 투자유치 가능 부지 수요조사를 비롯한 맞춤형 산업유치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전남지역의 여건과 특산물을 살릴 수 있는 식품산업, 녹색산업, 해양리조트, 실버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유치가 나선다.

경기 침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1조2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전국제일의 녹색산업 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 실

장동력으로 성장한 조선산업 육성 및 물류·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조선소에 대한 금융 지원은 물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력, R&D 활성화 등 행·재정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세계 3대 이벤트 중 하나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통해 고수의 관광·문화브랜드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동계전지 훈련팀 유치 확대와 국제 친선요트대회, 해안 울트라 산악자전거 대회 등 전국 규모의 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재정지출 대폭 확대 '경제 살리기' 조선산업·친환경 농업 육성 주력

전남도의 규모화·전문화에 주력한다. 여기에 서남해안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함과 동시에 전용 산업단지를 구축하며, 한국전력거래소 이전과 연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도 추진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여 서남해안 초광역 해양경제권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 사업과 연계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선벨트 구상, 서남권 종합발전계획도 차질없이 진행시킨다는 전략이다. 더욱이 전남의 새로운 성

자리매김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고흥 우주해양리조트(2012년 완공)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2012년 완공), 테마별 섬 개발 등을 통한 매력적인 남도 관광자원 조성으로 관광을 소득증대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내년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목표를 2008년 대비 10% 증가한 1억4천900만달러로 설정하고 중국산 식품 불신 및 환율 상승 등의 호기를 활용해 중국·동남아 시장 확대에 총력을 경주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유치활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사진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 창립총회.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는 올해 전남 조선타운 개발과 조선산단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서남해안 일원에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남 화원단지 대한조선소 전경.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민해 되시기 바랍니다.

2009

恭賀新年

전남고시학원

문의전화: 236-2468

곽내영고시학원

문의전화: 529-0090

한빛고시학원

문의전화: 234-0334

광주대성학원

문의전화: 227-0055-57